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경제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전망
 - ECB 총재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은 편
 - 영란은행 총재, 금리인상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
 - 중국 인민은행, 일부 기업의 경영 오류가 경제에 도전이 될 가능성
- **국제금융시장(주간):** 미국은 기업실적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가 강세
주가 상승[+1.8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하락[-4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주요 은행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투자심리 개선
 유로 Stoxx600 지수는 긍정적인 기업실적 전망 등으로 1개월 만에 최고 수준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수요 감소로 연결
 유로화가치는 0.3% 상승, 엔화는 1.7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 매수 유입과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2bp 하락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2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0/15일	10/8일	전주말대비			10/15일	10/8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471.4	4,391.3	1.82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7%	1.61%	-4bp
	유럽	469.39	457.29	2.65%		독일	-0.17%	-0.15%	-2bp
	중국	3,572.4	3,592.2	-0.55%	CDS 5y	한국	20bp	21bp	-1bp
	일본	29,069	28,049	3.64%		중국	49bp	52bp	-3bp
	한국	3,015.1	2,956.3	1.99%	위험 지표	EMBI+	371	374	-3bp
환율	달러지수	93.94	94.07	-0.14%		VIX	16.30	18.77	-13.16%
	유로화	1.1601	1.1569	0.28%		WTI유	82.28	79.35	3.69%
	엔화	114.22	112.24	-1.73%	원자재	구리	473.0	427.6	10.62%
	위안화	6.4356	6.4437	0.13%		금	1,767.6	1,757.1	0.60%
	원화	1,182.4	1,194.6	1.0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경제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전망

- WSJ 설문조사에 따르면,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말까지 5%대를 유지한 후, 내년 중반부터(내년 6월과 연말 각각 3.4%, 2.3%) 점진적 하락이 예상. 다이와 증권사의 Michael Moran은 공급 병목, 인력 부족, 경기부양책 등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
- 이러한 고물가 지속은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를 초래. 특히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가계의 건전성이 악화되고, 주택 및 주식가격이 큰 하방압력에 직면할 가능성. 시장에서는 첫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내년 연말을 예상
- 다만 응답자들은 2022,23년 성장률(3.6%, 2.5%)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. KPMG의 Constance Hunter는 2022년은 양호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혼란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8월 기업재고, 전월비 0.6% 증가로 예상치 부합. 자동차 부문은 감소

- 상무부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전월(0.6%)과 동일.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7.4% 증가. 다만 자동차는 반도체 부족 등으로 전월비 1.4% 감소. 기업재고 증가율은 금년 상반기 하락한 이후 낮은 수준을 지속

■ ECB 총재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은 편

- 라가르드 총재는 해당 전망을 전제로 계속해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. 다만 임금상승 등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
-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뉓 총재는 내년 상반기 ECB가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기 시작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. 다만 시장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을 상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
- 벨기에 중앙은행의 원쉬 총재는 ECB가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보다 유연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며, 경기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. 다만 과도하게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

■ 영란은행 총재, 금리인상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

- 베일리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지만,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보다 높아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.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이 증폭되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첨언

■ 중국 인민은행, 일부 기업의 경영 오류가 경제에 도전이 될 가능성

- 이강 총재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양호하지만, 채무불이행과 같이 기업의 경영 오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. 다만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이에 따른 일부 중소 은행의 문제가 경제 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
- 통화정책국의 쑨궈펑 국장은 4/4분기 은행권의 유동성은 큰 변동이 없고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. 이에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, 합리적 수준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발언
- 한편 골드만 삭스는 인민은행의 연내 지급준비율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. 인민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안정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보다는 공개시장조작 혹은 중기대출제도(MLF) 등의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추정

■ 중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,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장기 수입을 논의

- 해당 논의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국내 전력 부족에 따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 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. 이를 위해 Sinopec과 CNOOC 등이 포함된 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, 규모는 수백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

■ 골드만 삭스 CEO, 임금상승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

- 데이빗 솔로몬 CEO는 인플레이션 특히 임금 상승이 기업 경영진과 주요 주주들의 최대 우려 사항이며, 이에 대한 주요 정책당국의 선택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피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1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연준 퀼스 부의장 강연, 미국 9월 산업생산, NAHB 주택시장지수,
- 중국 3/4분기 성장률, 9월 고정자산투자, 산업생산,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주요 산유국, 향후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대규모 증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 - 블룸버그**
(Don't Expect OPEC to Keep You Warm This Winter)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 등은 가스와 석탄 가격 급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석유 수요가 일일 5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측. 이에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증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나 주요 산유국들은 기존 생산 계획을 고수
 - 사우디 등의 산유국들은 현재의 수요 증가보다는 내년 공급 과잉을 더 우려하고 있기 때문. OPEC도 올해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감소한 전세계 석유 비축량은 내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**세계화, 중대한 위기 속에도 지속될 전망 - Financial Times**
(How the World Stays Open for Business)
 - 코로나 19에 따른 민족주의적 성향 강화 등으로 탈세계화 전망이 증가. 그러나 국가 간 인적·물적 교류를 나타내는 DHL 세계연결지수는 1940년대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여러 심각한 위기에도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
 - 구체적으로 주요국은 기존의 다국적 무역협정을 포기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을 선택. WTO 등 국제기구의 경제교류 지원이 지속. 또한 중국과 여타 신흥국의 경제 성장 및 영향력 증대 등도 세계화의 필요성을 제고
- **신흥국 통화, 기준금리 인상보다 성장 둔화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 - 블룸버그**
(Emerging-Market Currencies Hurt by Growth Woes After Rate Hikes)
- **글로벌 에너지 위기, 화석연료 투자 감소 및 미흡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원인 - WSI**
(Behind the Energy Crisis: Fossil Fuel Investment Drops, and Renewables Aren't Ready)
- **유럽 공급망 혼란, 비용 증가 초래하며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- 블룸버그**
(Supply Chain Chaos, Surging Costs Set to Plague Europe's Profit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